

임택 청장 재도전...리벤지매치 주목

광주 동구청장

광주 동구는 임택 청장이 재선에 도전한 가운데 김성환 전 청장과 강신기 전 광주시기획조정실장, 진선거 전 광주시의회 부의장 등이 후보군에 거론되고 있다.

임 청장은 동구의회와 광주시의원을 거친 최초의 풀뿌리 지방자치 정치인으로 민선7기 구정을 안정적이고 무난하게 이끌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임 청장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인구 10만 명을 회복해 낙후된 구도심의 이미지를 벗어나고, 지난 2020년 지방 행정력과 주민 삶의 질을 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며 대통령 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동명동과 서남동 인세의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550억 원, 산수동 스마트그린도시 사업 100억 원 등 민선 7기 예산 1,794억 원의 역대 최대 예산을 확보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반면 임 청장에 맞서는 후보들도 그동안 지역을 위해 입지를 다져온 만큼 임 청장의 재선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임 청장의 유력한 대항마로는 김성환 전 동구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4·15총선에서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출마해 고배를 마신 김 전 청장이 출마할 경우 전·현직 구청장 간 리벤 매치가



임택



강신기



김성환



진선거

예상된다.

행정고시 출신인 김 전 청장은 전남도청과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 26년간 지방과 중앙 행정 공직에 몸담은 경험을 내세워 지역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최근 민주당의 일괄 복당 방침을 환영하며 다시 민주당 소속으로 재기를 노릴 것으로 관측된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16년 4월 동구청장 재선거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지만,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현 임 청장에게 패했다.

지난 지방선거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임 청장에 이어 2위를 기록한 강신기 전 광주시 기획조정실장도 지역 곳곳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행정고시 출신인 강 전 실장은 행정안전부와 광주시 등에서 27년간 쌓은 행정 경험과 인적네트워크가 강점이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지역민과 꾸준한 소통으로 인지도를 쌓고 있어 임 청장과의 리벤지

매치도 기대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강 전 실장은 “시장 재직 당시 지역 발전을 위한 열정과 노력, 중앙 정부에서 다양한 경험과 인맥을 통해 잠재된 동구에 생기를 불어넣고 옛 영광을 되찾겠다”고 출마표를 냈었다.

진선거 전 광주시의회 부의장도 동구 지역민들 사이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고흥 출신으로 전남공고 총학생회장을 역임한 진 전 시의원은 오랜 지방 의정 경험에서 우리나라는 추진력이 강점이다.

특히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묵묵히 도와왔던 점에서 이번 민주당의 일괄 복당 방침에 따라 임 청장의 유력한 대항마로 손꼽히고 있다.

아권에서는 양해련 전 광주시의원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양 전 시의원은 지방 의정 경험과 백화포럼 공동대표를 지내며 쌓아온 인적 네트워크와 과거 여러 차례 선거로 다져진 조직의 결집력이 강점이다. /민찬기 기자

서대석 기사회생...공천 싸움 치열

광주 서구청장

올해 서구청장 선거전은 서대석 현 서구청장이 기사회생하면서 판세가 복잡해졌다.

서 청장은 지난해 청탁성 금품수수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았지만 지난 7월 13일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돼 가장 큰 고비는 넘겼다.

선거법 위반 혐의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이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지만 벌금형으로 감형받으면서 서 청장의 재선 도전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민주당 공천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에 맞서 김이강 전 광주시 대변인, 김보현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 김영남 전 광주시의원, 배인수 전 서창농협 조합장, 황현택·장재성 광주시의원 등 다수의 후보들이 몰려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이강 전 대변인은 이용섭 시장의 비서실장, 정부특별보좌관, 대변인까지 역임하며 이 시장의 신임은 물론, 시장 공직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또 직원들과 소통의 장을 만들고 타 부서간 협약이나, 언론, 시민사회 등과의 협업을 주도하며 광주시의 혁신정책추진을



서대석



김보현



김영남



김이강

지원하는 등 내·외부적으로 활약을 펼친 바 있다.

지난 지방선거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서 청장에게 석패했던 김보현·김영남 전 시의원이 설욕을 노리고 있다.

김보현 전 대변인은 시민단체 출신으로 6·7대 광주시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등을 역임했으며 민주당 광주시장 정책실장을 거치며 지방과 중앙 정치의 풍부한 경험이 강점이다.

지난 11월엔 민주당 중앙선대위 사회혁신 추진단 부단장, 광주시장 선대위 정책본부장 등을 맡으며 광주에서 표발을 갈고 있다.

롯데마트 불법전대로 인한 130억 원의 사회환원을 이끌었던 김영남 전 시의원은 현재 서울에너지공사 상임감사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주말이면 광주를 찾아 지역민과의 스킨십을 넓혀가고 있다.

배인수 전 조합장의 출마 여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배 전 조합장은 지난

1997년 제9대 서창농협 조합장에 취임한 이후 13대까지 내리 5선에 성공한 만큼 조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현택·장재성 광주시의원도 최근 서구청장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먼저 황현택 의원은 지난 2010년 6·7대 서구의원을 역임하며 2018년 8대 광주시의회에 입성했다. 황 의원은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 및 소통을 통한 의정활동을 실천하다 보니 ‘서구의 민원 해결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11년째 매일 아침 교통통사를 하며 지역주민들의 눈도장도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재성 의원은 서구의회 5·6·7대를 역임한 3선 출신 의원이며 8대 광주시의원을 지내며 주민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구의원에 이어 시의원까지 약 15년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정가를 꿰뚫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민찬기 기자

재선 도전에 김용집 시의장 등 격돌

광주 남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이 재선에 도전한 가운데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강창용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임형진 전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광주·전남지역 최연소 자치단체장으로 문재인 정부 제1기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다. 폭 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남구청장 취임 초부터 굵직한 지역 현안과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면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했다.

도심 경관 훼손 등 문제로 철거 요구가 거뒀던 백운고가 철거를 31년 만에 이뤄내는가 하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진월 IC 진출입로 개선, 진월종합운동장 건설 과제, 장애인 숙원사업인 반다비 체육관 건립문제 등을 원만히 풀어나면서 ‘해결사’다운 면모도 보여줬다.

또 개청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879억 원의 백운광장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는 등 지역 정가에서는 김 청장이 뛰어난 조직력과 풍부한 정치경험을 바탕으로 재선을 향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병내



강창용



김용집



임형진

김 청장에게 도전하는 후보는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남구에서 오랜 시간 정치활동을 해온 김 의장은 주민들과 유대 관계를 기반으로, 김 청장의 대항마로 점쳐지고 있다.

김 의장은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 공동대표,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 특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강창용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은 송영길 당 대표 선거에서 광주 총괄본부장을 맡을 정도로 당내 신임도가 높다. 지방선거를 겨냥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교육과 복지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만나 공약을 준비 중이며, 주민들과 소통하며 표발을 다지고 있다.

서정성 남구의사회장도 후보 중 한 명

으로 거론되고 있다. 강한 추진력이 강점인 서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 직속 국민소통 특별위원,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소통 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등 당내는 물론 지역 내 지지기반도 탄탄하다.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광주선거대책위원장을 역임한 임형진 전 광주신보 이사장도 남구청장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현재 광주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을 맡고 있는 임 이사장은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장 곳곳을 누빈 중소기업 대변자로 꼽힌다.

이 밖에 박기수 TBN광주교통방송 본부장, 성현출 전 광주문화예술회관 관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민찬기 기자

문인 재선 가도...민주당 대서면 변수

광주 북구청장

광주 북구청장 선거는 현역 문인 청장의 재선 여부가 큰 관심사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탈당 인사들의 일괄 복당을 허용하는 ‘대서면’을 결정하면서 문인 청장의 재선은 쉽지만은 않은 승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역 정가에서는 복당 신청 기간 이후로 대략적인 후보군이 좁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북구청장 선거는 재선 가도를 달리고 있는 문인 청장과 민주당 복당을 노리는 예비 후보자들의 경선 구도로 압축되고 있다.

문 청장은 행정자치부와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지방과 중앙행정을 두루 경험하며 쌓은 관록으로 민선 7기 북구 구정을 안정적이고 원만하게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광주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2년 연속 예산 1조원 시대를 열며, 그간 주민 행복을 위한 열정과 협업, 각종 차별화된 정책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각종 평가와 공모에서도 대통령상 6회 등 392회 수상으로 1,480억원의 상사업



문인



문상필



안평환



이은방

비를 확보하는 등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민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여기에도 복지 사각지대나 다름없던 영구임대아파트의 주거 및 공공환경 개선주민공동체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며, 각종 생활 SOC사업과 국민체육센터, 문화센터, 돌봄센터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재선 고지에 바짝 다가가고 있다.

문 청장의 대항마로는 안평환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이재명선거대책위 사회혁신추진단 부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 자문위원은 이미 출마 의지를 밝혔으며, 광주 YMCA 최연소 사무총장과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초대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도시 재생과 주민자치 분야에서 전문

성과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지난 2018년부터 광주역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국비 확보와 자치구 센터를 비롯한 현장지원센터 14곳을 개소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며, 그 성과로 지난해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대표이사 리더십 경영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를 받기도 했다.

특히 이번 북구청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탈당 경력에 있는 이은방 제7대 광주시의회 전 의장과 문상필 제7대 광주시의회 전 의원 등의 복당 신청 여부가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제6대 광주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조호권 광주사회서비스원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 총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고배를 마신 진전수 전 청와대 행정관도 지역 정가에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최환준 기자

김삼호 ‘불출마’ 가닥...최대 격전지 부상

광주 광산구청장

광산구청장 선거는 올해 지방선거에서 광주 지역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현 구청장이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사실상 불출마로 가닥을 잡으면서 입성을 노리는 주요 후보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출마 후보자들은 마지막으로 남은 김 구청장의 대법 최종 판결 결과를 주목하며 입지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광산구청장 선거에서는 김학실 광주시의원과 박병규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 윤봉근 전 광주시의회 의장과 최치현

전 국가보훈처 정책보좌관, 이성수 전 광산구 부구청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당내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인식 속에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김 의원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광산구민들에게 눈도장을 확실히 찍고 있다. 무엇보다 30년 동안 방송사 아나운서로 활동하며 폭넓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게 강점으로 꼽힌다.

광주시의회 전반기 교육문화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수완지구와 점단지구의 과밀학급 해소와 학교 신설 문제를 풀어나면서 ‘해결사’다운 면모도 보여줬다.

박 전 부시장도 출마를 위해 일찌감치

지역민과의 소통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최초 제안자이자 설계자로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생산하는 ‘캐스퍼’의 아버지로 불린다.

오랜 기간 산업현장에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광주시 경제부시장, 사회연대 일자리 특별보좌관, 문재인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상생 일자리 특별위원 등을 역임해 현장 경험이 풍부하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최근에는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모델 개발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을 하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김학실



박병규



윤봉근



이성수



최치현

지난 광산구청장 선거 민주당 경선에서 석패한 윤 전 의장도 재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위원회와 국무총리실 행정회의조정위원으로 위촉돼 중앙행정에도 깊이 관여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해 오고 있다.

또 민주당 광주시장 부위원장과 상무위원, 광주광산구(갑)지역위원회 상임고문과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는 이용민 의원의 상임선거

대책위원장을 맡아 이 의원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정치 활동을 하며 지역 내 조직과 인지도 등에서 타 입지자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 전 청와대 행정관도 도전장을 내밀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광주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학생운동권인 그는 민선 5기와 6기 광산구 열린민원실장으로 일하다 지역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해낸 실력을 인정받아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발탁됐

다. 청와대에서 정부기획, 사회조정, 사회통합 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하며 5·18민중항쟁 진실 규명, 광주형 일자리 정착, 노동·환경 갈등 조정 등의 성과를 남겼다.

국가보훈처 정책보좌관도 역임한 그는 구정과 국정을 두루 경험한 인물로 특유의 친화력에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전 부구청장도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급 공무원에서 공직을 시작해 3급 부이사관까지 승진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특히 주장보다 경청에 중점을 두는 리더십으로 조직 안정과 갈등 조정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영복 기자